

이승구

본회 연구위원. 웨스트민스트 신학대학  
원 대학 조직신학 교수

# 그리스도인의 이상적인 교회생활

## 교회 회원됨의 중요성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일정한 교회의 회원(교인, 교우, 지체)일 것이다. 그리스도인이기는 한데 일정한 교회의 회원이 아니라면 그는 아직도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정한 교회의 회원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이야기이지만 오늘날에는 교회의 회원됨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기에 가장 먼저 바른교회의 회원됨을 강조하는 것이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무 곳에 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교회인 교회에 속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교회에 속해야 하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다.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고 했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문

제를 생각해보자.

첫째 형식적으로는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할 수 있다. 성경을 다른 문서와 비슷하게 여기거나 상대적으로만 중요하게 여기는 곳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성경 이외에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곳도 정상적인 하나님의 교회일 수는 없다. 오직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천을 여기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참교회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해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는 식으로 말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식으로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 곳도 바른 하나님의 교회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하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이에 순종하는 곳만이 참된 교회이고, 우리는 그런 교회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런 형식적인 요구를 만족시켰다고 해서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그 교회 안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대우를 받아야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것이다. 즉 그 교회의 예배, 가르침, 교육, 행정 모든 면이 이 성경의 원리에 따라 움직여지고 있는가, 최소한 그런 지난한 노력이라도 있는가 하는 것이 물어져야 한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의 원리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교회의 강단에서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가 하는 것은 아주 사활적인 문제이다. 성경을 내신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성경이 제대로 강론되고 가르쳐지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 일이 없이 그저 말로만 우리는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고백을 하면 그것은 표리가 부동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된다. 이렇게 성경의 어의와 그 문법적 구조와 그 문맥과 정황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설교를 듣는 이들의 마음에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의 세계관이 형성되고, 주어진 역사적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결단하고, 판단하며, 행할 수 있는 지침이 형성되는가 하는 것이다. 그런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그 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바른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할 수 있다. 부디 바라는 우리가 이런 바른 교회의 회원이기를 바란다.

### 이상적인 교회생활을 위한 점검의 기준들

우리가 이런 바른 교회의 회원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상적인 교회생활은 어떤 것이어야 할 것인가? 가장 기본적인 일부터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속한 그 교회의 충실한 회원(교인, 교우, 지체) 역할을 하는 데 힘써야 한다. 그렇다면 내가 속한 교회의 회원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일단 그것은 그 교회가 공예배로 정한 모임에 적극적으로, 충실하게 참여하는 일을 포함한다. 교회의 공예배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우가 모두 합하여 하나님께 그 영혼의 무릎을 꿇어서 절을 올리는 일이므로, 정상적인 예배에는 그 교회의 모든 교우가 다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따라서 교회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모든 교우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공예배로 모이게 해야 할 것이다. 교인들이 전체적으로 모일 수 없는 시간을 정해 놓고 이 시간에 오면 신앙이 좋은 것이고, 오지 않으면 신앙에 문제가 있는 듯이 여겨서는 안 된다). 교회마다 형편이 다르겠지만, 전통적으로 주일아침예배, 주일저녁예배, 그리고 삼일 기도회 등이 우리가 공집회로 여기고 모이는 모임들이다. 그렇다면 모든 교우들은 이 모든 집회에 적극적으로, 충실하게 참여해야만 한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를 필요도 없이 이는 자명한 일이지만,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모든 공집회에 참여한다는 의식이 없으므로 그 이유를 구태여 말한다면 우리는 다음 두 가지를 말해야만 할 것이다.

(1) 무엇보다도 이 예배와 기도회가 일차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모이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모이는 모임이기 때문이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종교도 우리네 인간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일이 많아져서, 우리의 삶이 복잡하거나 또는 그 모임이 우리에게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여겨지면 교회의 공집회에 빠지는 일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시대의 조류에 저항하는 의미에서라고 우리는 제대로 된 공집회 의식을 강화시켜야만 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강조하며 말하고 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10:25).

(2) 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모이는 예배와 기도회에서 주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배워나가야 할 말씀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리들을 배우게 하시며, 그것을 통해 자라나게 하시고, 삶에 적용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공집회에 참석하여 말씀을 풍성히 배워나가야 한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을 주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위한 것이 되게도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모임에 그저 몸만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의 하는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정신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의 시간은 우리가 쉬는 시간이 아니라, 부지런히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하는 시간이요, 신경을 써야 하는 시간인 것이다. 이 예배를 통해서 특히 그 중 말씀을 강설해주시는 시간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판단 준거를 가지고 살라고 하셨는지를 잘 파악하고 구성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강설시간(설교시간)에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이들로써 있어야 한다. 그 시간에 나는 구경꾼이 아닌 것이다. 우리 중에는 그 누구도 예배보는 이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우리가 천주교의 미사 참여자들이 아니라면 말이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그 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다(설교자를 포함해서 말이다).

이 두 가지 이유는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태도를 결정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정서를 위주로 하여서 예배와 교회활동을 하지 않는다.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어떤 교회에로 이명을 하여 예배를 참석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배워서 그 말씀의 원리로 나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 지침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것 외에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공예배에 다 성실히 참여해야 하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길뿐더러,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전 경륜을 잘 배워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속해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깊이 있게 사귀어 나가는 일에 힘쓰는 것이 교회의 회원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된다. 이 사귄다와 교제가 없이는 참된 교회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 중의 중요한 하나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히10:24).

그러므로 공예배 이후의 시간들과 그 이외의 시간들을 이용해서 여러 지체와 삶과 말씀을 나누어 나가야 한다. 이 작업을 위하여 우리가 개조하거나, 지양해야 할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 있다. 그것은 마치기 무섭게 출구로 향하는 군중의 모습이다. 물론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교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공예배 이후의 시간을 한 한 시간 정도씩 서로 사귀고, 교제하는데 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어떻게 현실 가운데 적용해 가고 있는지를 나누고,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세워나가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성도들이 이렇게 사귀어 갈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 조치와 배려를 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개개인 성도들은 자신들의 삶을 잘 정돈하고 규모 있게 살면서 그 교회공동체에 새롭게 입교한 이들이나 외롭고 돌아볼 이가 없는 분들을 때때로 초대하여 음식이나, 차라도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해나가려고 해야 한다. 대개 서구의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 등의 절기 때에 집에 가지 못하는 이웃이나 가난한 이들을 정성껏 대접하며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또는 날씨 좋은 주일 오후에 정원에서 차와 다과를 마련하고 학생들을 초청하여 인생의 여러 이야기를 하며 기독교적 교제를 하려고 애쓰는 모습도 보았다. 도시에 사는 이들에게는 이런 삶의 여유가 없도록 우리를 휘몰아 가고 있으므로 우리는 좀더 신경을 써서 이런 작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일은 온 가족이 다 관여하는 것이므로 이런 교제를 이루어 가기 위한 선결조건은 그 가정 전체적으로 따뜻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셋째로,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형편에 따라 기본적인 봉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영역을 하나씩 찾아서 섬기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이 때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나의 전문분야와 관련된 봉사의 직무를 찾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특별한 위원회의 위원들이 되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간접적으로 돕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한 봉사를 위해서 시간을 낼 줄 알아야 한다. 예배와 교회의 여러 모임을 위해 사용되는 예배당(또는 교회당)을 청소하는 일에서부터 말이다. 우리네 상황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봉사를 좀더 강조해야 할 것 같다. 과거에 예배당에 출석하는 것은 그 예배당이 정말 삶의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것을 의미했었는데, 요즈음에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여럿이 되어서 그런 예배당을 중심으로 하는 모습을 찾기가 힘들어진 것이다. 교회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 예배당 중심의 삶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하는 예배당의 사소한 일들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요즈음은 어렵고 힘든 일은 누구나 하지 않으려고 하여, 예배당을 청소하고 깨끗이 하는 일은 교인들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인 듯,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따로 있고 교우들은 경제적인 부담만 하면 되는 듯이 생각하는 풍조가 있다면, 그것은 편리한 일일 수는 있고, 또 그렇게 하는 데가 교인이 더 많이 모이는

현대식 교회인지는 몰라도, 그것은 참된 교회의 의식을 상실해 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넷째로는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된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상적으로 자라가며, 한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이야기하고, 사귀고, 함께 하는 일들을 해야한다. 이 일은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가 감당해야하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의 성취를 위해서 애써서 시간을 내어 해야 하는 일이다(세 번째에서 말한 교회 봉사는 각자의 재능에 따라 해야 하지만 이 전도와 양육의 일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바쁜 시간 가운데 이 전도와 양육을 효과적으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는 같은 전문직을 가졌거나 같은 관심을 가진 분들과 함께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들이 함께 주님의 일을 한다는 의식이 고양될 것이다. 이것은 내가 속한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좀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는 일의 한 방편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한 교회의 회원인 이는 그리스도의 보편의 회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속한 교회의 회원들과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의 교우들과도 따뜻한 사랑을 나누어 가야 한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관련해서 해야만 하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들이므로 시간 조절을 잘해서 반드시 해나가야만 하는 일들이다. 부디 바라는 우리들의 교회 의식이 제대로 되고, 교회의 분자로서의 의식이 성장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상적인 지체의를 구현하고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